

# 朝鮮時代 高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sup>1</sup>이해웅, <sup>2</sup>김 훈

<sup>1</sup>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2</sup>의사학교실

## A Research on the Disease of King Gojong in the Choseon Dynasty

<sup>1</sup>Hai-Woong Lee, <sup>2</sup>Hoon Kim

<sup>1</sup>Dept. of Public Health, <sup>2</sup>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King Gojong was the twenty-sixth King in the Choseon Dynasty. He took the throne when he was only 12 years old and had to set up regency for 10 years. During his period, situations were worsened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In the end, after 3 years from abdication of the throne, the Choseon Dynasty was overthrown in compliance with a coercion by Japanese empire.

He died in 68 years old. We can assume that his inveterate disease are weakness of the spleen and the stomach. In addition, he suffered from a boil, a cold, dermatosis, eye disease, an external wound, dentistry disease, arthritis, etc. The official cause of his death was cerebral hemorrhage. But we assume that the possibility of poison murdering is high.

Key words : Gojong, Choseon Dynasty, King, Annals of the Choseon Dynasty, disease, cause of death

### I. 들어가는 글

고종(高宗)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적실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 여흥순목대원비(驪興純穆大院妃) 민씨(閔氏)와의 사이에 1852년(철종 3년) 7월 25일 태어났다. 휘(諱)는 희(熈), 자(字)는 성림(聖臨), 호(號)는 주연(珠淵)이다<sup>1)</sup>.

철종(哲宗)이 후사없이 승하하자<sup>2)</sup> 헌종(憲宗)의 어머니 인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의 전교로 고종은 12살의 나이에 조선조 26대 왕으로 등극한다<sup>3)</sup>. 신정왕후 조씨의 수렴청정(垂簾聽政)이 시작되지만 사실상 흥선대원군이 대원위(大院位)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국정을 총괄하여 섭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하자 반세기 이상 계속된 안동 김씨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서원을 철폐하는 등의 여러 가

지 혁신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왕권의 위엄을 보이하고자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납전(願納錢)을 징수하는 등의 실정으로 양반과 서민의 원성을 사게 된다. 고종은 1866년(고종 3년) 15세의 나이로 민치록(閔致祿)의 딸과 결혼한다. 그녀가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같은 해 천주교도 박해령으로 인해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점령한 병인양요(丙寅洋擾)를, 고종 8년(1871년)에는 미국이 도발한 신미양요(辛未洋擾)를 겪으면서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더욱 고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민비 일가와 보수 유학자들은 대원군 하야 공세를 펴, 고종 10년(1873년) 11월 섭정의 권한을 환수하고 고종이 통치 대권을 장악, 친정(親政)을 시작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종은 친정 후에도 정권을 민비 척족들에게 의지하게 된다. 민씨정권은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고종 13년(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을

접수 ▶ 2011년 11월 18일 수정 ▶ 2011년 11월 18일 채택 ▶ 2011년 12월 24일  
교신저자 ▶ 김 훈,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51-850-8652 E-mail : hkim@deu.ac.kr

1) 朝鮮王朝實錄, 「高宗實錄總序」를 참조함.

2) 철종 14년(1863년) 12월 8일.

3) 고종 즉위년(1863년) 12월 13일.

체결하고 구미 열강과 차례로 조약을 맺으며 개항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나, 고종 19년(1882년)에 임오군란(壬午軍亂), 고종 21년(1884년)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나게 된다.

고종 31년(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그 진압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교전하게 된다. 이 청일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1895년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청의 종주권은 상실되고 일본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간섭하에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시행하여 급격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일본이 노골적인 침략정책과 이권 탈취에 혈안이 되자 고종과 민씨 정권은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고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친로정책(親露政策)을 펴게 되었다. 이에 일본 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고종 32년(1895년) 8월 군대와 낭인들을 동원하여 왕궁을 습격하고 왕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일본의 정치적 간섭에 지친 고종은 고종 33년(1896년) 2월 갑자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이후 친러 정부가 집정하면서 열강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는 등 국가의 권익과 위신이 추락하고 국권의 침해가 심해지자 독립협회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왕의 환궁과 자주 독립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고종은 고종 34년(1897년) 2월 덕수궁으로 환궁하였으며, 10월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 위(位)에 올라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였다.

고종 42년(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 국정을 전횡하였으며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고종은 국제 정치에 호소하고자 고종 44년(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李相高) 등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고종은 일제의 강요로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7월 20일 퇴위하게 된다.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純宗)이 황제로 즉위하였고, 고종은 상왕인 태황제(太皇帝)가 되었다. 순종 3년(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합병하자 고종은 이 태왕(李太王)으로 격하되었다가, 순종 12년(1919년) 1월 21일에 덕수궁(德壽宮) 함녕전(咸寧殿)에서 68세를 일기로 사망한다<sup>4)</sup>.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한 의학사 연구분야 가운데 질병사 연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일반 역사 연구에도 많은 참고자료가 될 중요한 주제라 생각된다. 또한 역대 왕들의 질병관련 기록은 역사기록 중에 비교적 구체적이며 자세한 개인적 병력을 기술하고 있으면서 당대 최고의 의료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 질병사 뿐만 아니라 당대 의학의 실상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사료를 중심으로 고종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고종의 질병

『朝鮮王朝實錄』의 사료 가운데 고종의 질병관련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고종 4년의 기록이다. 당시 16세의 고종은 살쩍부위<sup>5)</sup>에 가벼운 종기가 생겼으나 쉽게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 4년(1867년) 1월 2일의 기록<sup>6)</sup>에는 고종이 살쩍부위에 종기가 발생해 내의원의 진찰을 청한 사료가 나온다. 당시 의관은 종기 부위에 붙일 고약으로 당귀고(當歸膏)와 납지고(臘脂膏)를 추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도의 치료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관 이경년이 거론한 당귀고(當歸膏)는 『東醫寶鑑』에 허로통치약(虛勞通治藥)으로 수록되어 나온다<sup>7)</sup>. 여기서 당귀고는 종기와 같은 외과질환 치료가 아닌 만성기관지염·

4) 다음 자료를 참조함. (박영규, 『한글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1996, pp. 432-454.)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 푸른역사, 1998, pp. 251-275.)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5) 살쩍: 뺨 위 귀 앞에 난 머리털. 鬚毛.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8, p. 1885.)

6) “중희당에 나아갔다. 약원이 입진을 행하였다. 살쩍에 부스럼이 나서 請診하였기 때문이다. 의관 이경년이 아뢰기를 ‘맥박이 좌우 삼부(三部)가 고르게 뛰었습니다.’ 하였다. 도제조 유후조가 의관에게 말하기를 ‘무슨 약을 붙여서 치료해야 하겠는가?’ 하니 이경년이 아뢰기를 ‘당귀고와 납지고가 가장 긴요합니다.’ 하자 유후조가 아뢰기를 ‘이 두 약을 붙여서 치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大內에서 치료할 것이니 굳이 다시 청진할 것 없다.’ 하였다. (御重熙堂 行藥院入診. 以鬚腫請診也. 醫官李慶年奏 脈候左右三部 調均矣. 都提調柳厚祚謂醫官曰 當以何藥附治乎. 慶年曰 當歸膏 臘脂膏 最緊矣. 厚祚曰 以此二藥 附治何如. 教曰 自內治之矣. 不必更爲請診也.)” (고종 4년 1월 2일)

7) “當歸膏 治五勞七傷 諸虛百損 補養脾胃 滋榮筋骨 枸杞子 當歸各五兩 山乾地黃 白朮 芍藥以米粉同炒各四兩 白茯苓三兩 薏苡仁二兩 山藥 麥門冬各一兩二錢半 地骨皮 蓮肉 人參各一兩 熟地黃 貝母 甘草各七錢半 天門冬五錢 五味子二錢半 琥珀六分 右用水五升入藥 微火煎之 再加水五升 如此七次 濾去滓 文武火煎 每斤加熟蜜四兩 共熬成膏 每取二茶匙 空心 白湯調下(入門)”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5, p. 1277.)

기관지천식·기관지확장증 등이나 몸이 허약하거나 수술 후의 일반 보약으로 쓸 수 있는 처방이다<sup>8)</sup>. 또한 복용법에 있어서도 고약(膏藥)으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는 내복약(內服藥)을 말하는 것으로 외용약(外用藥)이 아니다. 중기 부위에 붙여서 치료할 약을 물었던 도제조의 질문에 의관이 당귀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의 당귀고는 의관이 추천했던 처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의관 이경년이 말한 당귀고는 명대(明代) 초기 주원장(朱元璋)의 다섯째 아들인 주숙(朱櫨)에 의해 만들어진 『보제방(普濟方)』에 수록된 당귀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납지고(臘脂膏)는 명대(明代) 신두원(申斗垣)이 편찬한 『외과계현(外科啓玄)』에 수록된 처방이거나<sup>10)</sup> 송대(宋代) 관찬방서인 『성제총록(聖濟總錄)』에 실린 것<sup>11)</sup>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종의 중기 증세는 곧 차도를 보여 아물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내의원의 진찰을 청한 다음날인 1월 3일의 기록에는 어제에 비해 증세가 나아졌으니 내의원의 참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sup>12)</sup>, 이를 뒤에는 중기가 난 곳이 거의 아물어 차도가 있으니 내의원의 구두로 문안하는 것도 그만두게 한다<sup>13)</sup>.

고종은 자신의 나이 33세가 되는 고종 21년(1884년) 겨울에 들어와 세자와 함께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기록 상에는 자세한 병증이나 치료 방제 등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고종이 당시 어떤 질환을 앓았는지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이를 진하(進賀)<sup>14)</sup>하는 의식을 베풀고 사면령을 내리기까지 한 것을 보건대 일정기간 병증이 상당했었던 것만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고종 21년 12월 8일에 내의원에서 성상(聖上)의 체후(體候)가 미령(靡寧)하다는 진언을 듣고 입진(入診)하여 탕제를 논의하여 정할 것을 청한 기록이 나오며<sup>15)</sup>, 약 열흘 뒤에는 영의정 심승택(沈舜澤)이 약제의 효험이 있어 임금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경축하도록 아뢰는 기록이 나타난다<sup>16)</sup>. 그 열흘 뒤인 12월 29일의 기록에는 고종 자신이 “겨울에 이르러 나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세자의 건강도 좋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육기(六氣)가 교감(交感)할 때 계절에 따른 조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백령(百靈)이 와서 도와주어 몸 보양을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건강이 회복된 것을 진하(進賀)하는 의식을 인정전에서 거행하고 사면을 반포한다<sup>17)</sup>. 약 한 달 뒤쯤에는 내의원에서 진찰을 청한 기록에서 증전과 함께 고종이 감기 증세를 보

였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고종은 39세 무렵(1890년)에 여름 감기와 체증(滯症)으로 시달렸다. 고종 27년 5월에 내의원에서 고종의 여름 감기로 인해 입진(入診)을 청한 기록이 나타나며<sup>19)</sup>, 약 2달 뒤에도 내의원에서 여름 감기로 입진을 청하고 있으며<sup>20)</sup>, 또 약 2달 뒤에 감기와 체증(感滯之候)으로 몸을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섭행(攝行)<sup>21)</sup>할 것을 아뢰는 내의원의 주청이 나타난다<sup>22)</sup>. 당시 고종은 체력이 약해져서 여름 감기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고종의 고질적 질환이라 할 수 있는 체증이 같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고종은 43세 무렵(1894년)에 얼굴과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질환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31년 11

- 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7, p. 218.
- 9) 當歸膏 - 『普濟方』卷三一三. 組成: 當歸 川芎 木鱉子 川山甲 蓖麻子 敗龜版 油頭發 白薇 白及 白芷 草烏各等分. 四物湯一貼 敗毒散1貼. 以上香油1斤 于罐內浸此藥 春五夏三 秋七冬十日. 后用松香三十兩 夏使油四兩. 冬使油4兩半 次用 乳香一兩 沒藥一兩 血竭少許 麝香少許 龍骨煨三錢 白礬半兩(飛) 主治: 諸般癰疽發背 癩瘡惡瘡. 制備方法: 上為末. 待松香入油 用槐條攪勻 文武火熬 去煙淨 入藥 滴入水成珠子則膏成. 水浸 再下油十兩或九兩 使黃丹四兩 槐 柳 桃枝各七寸 杏仁半兩 再煎勻煙淨 用沒藥末半兩 乳香半兩 皂針攪勻成膏 收于罐內 大小攤之. (『醫學百科』 <http://big5.wiki8.com>)
- 10) 臘脂膏 - 外科啓玄 卷十二. 組成: 大楓子肉20個 木鱉子肉20個 輕粉1.5克 枯礬1.5克 水銀3克 用法: 上藥研為末. 用臘月豬脂調搽面上. 一夜即愈. 主治: 肺風瘡 酒皷鼻. (『醫學百科』 <http://big5.wiki8.com>)
- 11) 臘脂膏 - 聖濟總錄 卷一百一. 組成: 臘月豬脂4升, 大鼠1枚. 主治: 面上癩痕. 用法用量: 每用先以布拭 令癩痕色赤 次以膏涂之 3-5度愈. 制備方法: 上藥入鑊中 以文火煎之. 待風銷盡 以新綿濾去滓 入瓷盒盛. 用藥禁忌: 避風. (『醫學百科』 <http://big5.wiki8.com>)
- 12) “初三日. 藥院口啓. 批曰 比昨稍勝 卿等不必入侍.” (고종 4년 1월 3일)
- 13) “初五日. 教曰 腫處幾至完全 快有勝度. 藥院口啓問安 置之.” (고종 4년 1월 5일)
- 14) 진하(進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조신(朝臣)들이 모여 임금에게 나아가 축하하는 일.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법제처, 1979, p. 767.)
- 15) “藥院口啓 伏聞待令醫官所傳 則聖候靡寧云. 不任區區伏慮 亟許臣等率醫官入診 議定湯劑. 批曰 今已向差 卿等不必入侍矣.” (고종 21년 12월 8일)
- 16) “領議政沈舜澤曰 向日玉度偶偶 藥院至徹口啓 珍劑奏效 今已康復. 此乃宗社無疆之福 臣民莫大之慶也. 臣等歡抃 慶祝之心 不可以言語形達. 而敢以告布 稱慶 仰請矣.” (고종 21년 12월 19일)
- 17) “陳賀以權停例 行禮于仁政殿 頒赦. … 迨冬沍予憂愆和 亦春邸厥崇彌苦 是繇六氣之交感 有妨節宣. 所以百靈之來扶 邇宜頤養 何幸昔疾之愈 旋弛不寐之憂. 管籥羽旄 齊百姓靈色相告 日月星海 漢四重樂歌復騰.” (고종 21년 12월 29일)
- 18) “藥院口啓 伏聞入診醫官所傳 則聖體以感候靡寧 中宮殿亦以感候靡寧云. 亟許臣等率醫官入診議劑. 批曰 湯劑 當自內議定. 卿等不必入侍矣.” (고종 22년 1월 30일)
- 19) “藥院口啓 聖體以暑感有靡寧之節云 敢請入診. 批曰 不過一時暑崇 亦已向勝 卿等不必入診矣. 再啓 又不允.” (고종 27년 5월 14일)
- 20) “藥院啓 聖體以暑感之候 有靡寧之節 中宮殿亦有暑滯之候云 臣等率醫官請入診議劑. 批曰 未有甚損 中宮殿今已向復 卿等不必入侍矣.” (고종 27년 7월 8일)
- 21) 섭행(攝行): 일을 대신 행함.
- 22) “藥院口啓 聖體以感滯之候 有靡寧之節云 伏不勝憂慮之至. 臣等率醫官入診 詳察聖候 議定湯劑. … 批曰 微有感候 亦不至甚. 湯劑當自內議定 卿等不必入侍.” (고종 27년 9월 10일)

월 26일에 내의원에서 고종의 얼굴에 풍화지증(風火之證)이 있다고 하면서 입진을 청하고 있으며<sup>23)</sup>, 3일 뒤의 기록에는 고종 자신이 “얼굴의 증상은 점점 나아가지만 두 눈과 몸의 풍열증(風熱症)으로 여전히 괴롭고 매우 가렵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sup>24)</sup>. 또한 하루 뒤의 기록에는 고종이 “얼굴이 붓고 붉어지던 기운은 빨리 나아가지만 두 눈의 풍열증(風熱症)과 온몸이 가려운 고통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인데다가 체증(滯症)도 겹쳐 나타났다.”라고 토로하고 있다<sup>25)</sup>. 다음 날인 12월 1일에도 고종은 밤새 온 몸이 가려웠고 눈의 풍열증(風熱證)도 여전히 차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의원에서는 이러한 증세의 원인을 원기(元氣)가 빠져서 몸이 약해지고 체증이 허한 틈을 타서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sup>26)</sup>. 12월 2일의 기록에는 고종의 이러한 피부질환을 치료할 처방이 거론된다. 당시 고종은 내복약으로 가미소풍산(加味消風散)을 사용했고, 외용약은 파초즙(芭蕉汁)에 우황(牛黃)을 섞은 약을 사용했다<sup>27)</sup>. 가미소풍산(加味消風散)은 소풍산(消風散)의 가미방으로 보여진다. 소풍산은 『東醫寶鑑』에 풍(風)이 위로 치밀어서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캄캄하며 코가 막히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치부가 저리면서 가려운 것과 부인이 血風으로 두피가 부으면서 가려운 것을 치료한다라고 나와 있으며<sup>28)</sup>, 동맥경화증·고혈압병·청신경염·비후성 비염·결막염·두드러기 등 때 쓸 수 있는 처방이다<sup>29)</sup>. 12월 5일에는 가려움증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서 가미소풍산 1첩을 지어 올리도록 하였으며<sup>30)</sup>, 12월 7일에는 가미소풍산에 승마(升麻)와 갈근(葛根)을 각각 한 돈씩 더 넣어서 올리도록 한다<sup>31)</sup>. 이후 기록에는 고종의 피부질환 관련 언급이 나타나질 않는다. 당시 고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염 증세, 또는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병세가 호전되어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고종은 47세가 되는 고종 35년(1898년)에 개인적으로 여러 중대한 사건을 겪는다. 그 해 1월에는 생모인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이 사망하였으며<sup>32)</sup>, 2월에는 부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잇달아 사망한다<sup>33)</sup>. 또한 여름에 이르러서는 아편 커피 독살사건으로 태자와 함께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한다. 생모 여흥 부대부인의 사망으로 인해 몸을 조리할 목적으로 속미음(粟米飲)을 들기도 하는데<sup>34)</sup>, 속미음은 좁쌀죽을 말하는 것으로 비장(脾臟)을 보해주는 것이다<sup>35)</sup>. 이런 속미음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이 병후(病後), 또는 거상(居喪) 등으로 인한 감선(減膳)에 몸을 조리할 목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조리식이었다<sup>36)</sup>.

또한 당시 고종은 비위허약(脾胃虛弱) 증세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2월 12일의 기록에 태의원(太醫院)<sup>37)</sup>의 입진(入診) 시에 고종이 “요즈음 체한 것 때문에 소화제를 많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으며<sup>38)</sup>, 9월의 기록에는 태의원에서 고종이 담체(痰滯)로 몸이 편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sup>39)</sup>. 여기에 담체(痰滯)는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운화기능(運化機能)이 실조(失調)됨으로 인해 습담(濕痰)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고종은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종 35년 9월에 들어와 고종과 태자가 건강이 나빠진 원인을 규명하는 기사가 나온다. 사관(史官)의 평을 종합해

- 23) “藥院口奏 臣纔於承候時 仰瞻面部 有風火之證. 下情不勝憂慮 亟許臣等率醫官入診 詳察證候 議定當進湯劑. 批曰 消散之劑 當自內爲之.” (고종 31년 11월 26일)
- 24) “藥院三奏. 批曰 面部諸節 漸臻勝度 而兩眼與體上風熱之崇 尙苦搔癢現甚. 內消外治 自內議定 不必入診矣.” (고종 31년 11월 29일)
- 25) “藥院四奏. 批曰 面部淨紅之氣 快臻勝度 而兩眼風熱之證 全體搔癢之苦 與昨一樣 兼有滯崇. 內以湯劑 外之塗洗 自內亟治 不必入診矣.” (고종 31년 11월 30일)
- 26) “藥院口奏 … 仰揣聖候 則諸症一向交苦元氣受瀉而痿滯崇乘虛而肆. … 批曰 夜間全體搔癢 眼部風熱 尙無差度 已自內調治 不必入診矣.” (고종 31년 12월 1일)
- 27) “藥院都提學義和君綱以 伏聞入診醫官立言 脈候縱臻勝度 而風熱尙繁餘崇 搔癢終遲快差. 湯劑以 加味消風散議定矣 一貼今方煎入 外塗以蕉汁加牛黃調進 而區區下情 一倍焦灼 臣等職忝營業 不敢遽退私次. 自今日本院竝直之意 上奏. 批曰 湯劑製入 竝直置之. 又以既承批旨 雖不得竝直 而在臣等情理 終不敢退歸私次 木院輪直之意上奏. 批曰 輪直亦置之.” (고종 31년 12월 2일)
- 28) “消風散 治諸風上攻 頭目昏眩 鼻塞 耳鳴 皮膚麻痺 及婦人血風 頭皮腫痒. 荊芥 甘草各一錢 人參 茯苓 白朮 蠶 川芎 防風 霍香 蟬殼 羌活各五分 陳皮 厚朴各三分. 右剉作一貼 入細茶一撮 同煎服 或爲末 每二錢 以茶清 或溫酒 調下(入門).”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범인문화사, 2007, pp.571-572.)
- 2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민집 동의화서전』, 서울, 까치, 1997, p. 554.
- 30) “藥院口奏 請輪直. 批曰 風熱進退無常 今日晚後 面部又有搔癢. 寔屬苦惱 加味消風散 依前方一貼製入 輪直置之.” (고종 31년 12월 5일)
- 31) “藥院口奏 請輪直. 批曰 面部風熱 體上搔癢 終遲快勝 湯劑依前方加升麻葛根各一錢製入 輪直置之.” (고종 31년 12월 7일)
- 32) 고종 35년 양력 1월 8일.
- 33) 고종 35년 양력 2월 22일.
- 34) 고종 35년 양력 1월 9일.
- 35) “粟米 益脾. 作粥飯常食佳. 諸梁亦同.(本草)” (前掲書 『신대역東醫寶鑑』, p. 410.)
- 36) 다음 2편의 줄지를 참고할 것. (김훈·이혜웅, 『朝鮮時代 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0, 23(1), pp. 115-124.) (김훈·이혜웅,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2), pp. 107-126.)
- 37) 고종 32년(1895년) 4월 2일에 궁내부 관제를 개편하여 내의원(內醫院)의 명칭을 전의사(典醫司)로 바꾼다. 약 2년 후인 고종 34년(1897년) 양력 1월 4일에 전의사(典醫司)를 다시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한다.
- 38) “行藥院入診. … 上曰 近因滯崇 自內多用消導之劑. 然所奏至此 依爲之.” (고종 35년 양력 2월 12일)
- 39) “太醫院 都提調沈舜澤卿閱泳駿少卿趙乘聖 口奏以爲 卽伏聞待令醫官所傳之言 則以痰滯之崇 有靡寧之節云 下情不勝驚惶. 亟許臣等率醫官入診.” (고종 35년 양력 9월 12일)

보면 천민출신으로 러시아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던 김홍륙(金鴻陸)이란 인물이 거액의 착복사건이 탄로가 나서 유배형에 처해지자, 유배를 떠나는 길에 돈으로 요리사 김종화(金鍾和) 등을 매수해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타서 고종을 독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sup>40)</sup>. 고종과 태자가 아편이 든 커피를 마신 것은 고종의 탄일 다음날인 7월 26일이었다. 당시 상황을 김명길(金命吉) 상궁은 『낙산재주변(樂善齋周邊)』(1977년, 동아일보사)이란 책에서 복용한 커피의 양이 많았던 태자는 며칠 동안 혈변(血便)을 누고 치아가 빠져 의치를 18개나 해 넣었다고 증언한다<sup>41)</sup>. 10월 들어와 김홍륙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sup>42)</sup>, 황제와 황태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권정례(權停例)<sup>43)</sup>를 거행하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sup>44)</sup>.

고종은 52세가 되는 고종 40년에 음식에 모래가 섞여 들어가 치아가 손상되기도 한다. 11월 2일의 기록에 태의원에서 수라(水刺)에 모래가 섞여 치부(齒部)가 손상 받았다고 하니 입진할 것을 청한 기록이 나온다<sup>45)</sup>. 고종은 밥상에 올린 생홍합에 모래가 들어가서 치아가 손상되었으므로 인해 당시 어선(御膳)을 담당했던 숙수(熟手) 김원근(金元根) 등이 유배형에 처해진다<sup>46)</sup>.

고종은 55세 무렵에 비위기능(脾胃機能)이 순조롭지 못해 담음유주증(痰飲流注證)이 나타났고 치료를 위해 영위반혼탕(榮衛返魂湯)을 이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 43년 5월 25일의 기록에는 태의원에서 고종의 증세를 ‘담이 걸리는 증후(痰牽之候)’라 언급하면서 진찰을 청하고 있다<sup>47)</sup>. 3일 뒤인 5월 28일의 기록에는 태의원 도제조(都提調) 이근명(李根命)이 고종에게 통순산(通順散)을 드신 후 몸이 어떤지 묻는다. 고종은 “처음에는 가슴에 담(痰)이 차서 심히 괴롭고 호흡이 순조롭지 못하더니 지금은 조금씩 차도가 있다. 통순산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리와 옆구리가 아직 약간 걸리는데 상부에 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 필시 풍화(風火)가 곁으로 발산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답변한다. 또한 외용약으로 납설수(臘雪水)를 이용해 환부를 씻고 우황(牛黃)과 웅담(熊膽)을 피부에 발라보았다고 이야기한다. 이근명은 고종의 춘추가 이미 노쇠해졌으니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욕심을 적게 할 것(淸心寡慾)을 말하며, 구체적 방도로 음식을 조절하고(節飲食) 생활을 조심하며(愼起居) 생각을 적게하고(省思慮) 정신을 기를 것(養精神)을 주청한다<sup>48)</sup>.

언급된 병증을 보건대 당시 고종은 담음유주증(痰飲流注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담음유주(痰飲流注)

는 주로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인해 인체내의 비생리적 체액인 담음(痰飲)이 발생해 인체 여러 부위에 돌아다니면서 켕기고 걸리고 아픈 증세가 일정한 부위에 한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증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위반혼탕(榮衛返魂湯)으로 치료하는 병증이다<sup>49)</sup>.

통순산(通順散)은 바로 영위반혼탕(榮衛返魂湯)의 별칭이 된다. 영위반혼탕은 『東醫寶鑑』에 일체 담음(痰飲)으로 생긴 질환과 담종(痰腫)을 치료하며 옹저발배(癰疽發背)와 유주중독(流注腫毒)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나와있다<sup>50)</sup>. 납

40) “음력으로 올해 7월 10일 김홍륙이 유배 가는 것에 대한 조칙을 받고 그날로 배소로 떠나는 길에 잠시 김광식의 집에 머물렀는데, 가지고 가던 손 주머니에서 한 냥의 아편을 찾아내어 갑자기 흉역의 심보를 드러내어 친한 사람인 공홍식에게 주면서 어선에 섞어서 올릴 것을 은밀히 사주하였다. 음력 7월 26일 공홍식이 金鍾和를 만나서 김홍륙에게 사주받은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이 약물을 어공하는 차에 섞어서 올리면 마땅히 1,000원의 은으로 수고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김종화는 일찍이 보현당의 고지기 [庫直]로서 어공하는 서양 요리를 거행하였었는데, 잘 거행하지 못한 탓으로 태거(汰去)된 자였다. 그는 즉시 그 약을 소매 속에 넣고 주방에 들어가 커피 찻주전자에 넣어 끝내 진어하게 되었던 것이다. (曆本年七月十日 金鴻陸承流配詔勅 同日發配之路 暫住金光植家 搜出一兩鴉片於所携手袋 猝發凶逆之心 給付所親人孔洪植密喉調進於御膳矣. 陰曆七月二十六日 洪植逢金鍾和 備說受喉於鴻陸之狀 以此藥物調進於御供茶 則當以一千元銀酬勞云. 鍾和曾以寶賢堂庫直 御供洋料理舉行 因不善舉行而見汰者也 卽袖該藥入廚房投下咖啡茶罐 竟至進御.)” (고종 35년 양력 9월 12일)

41)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대한제국 황실비사』, 서울, 이마고, 2007, p. 220.

42) 고종 35년 양력 10월 10일.

43) 권정례(權停例): 朝賀 때의 임금이 臨御는 없더라도 權道로 式만은 거행하는 일.

44) 고종 35년 양력 10월 23일.

45) “太醫院口奏 水刺進御之際 沙石混入御膳 齒部受損云. 亟許臣等率醫官入診.” (고종 40년 양력 11월 2일)

46) 고종 40년 양력 11월 15일.

47) “太醫院奏 伏聞待令醫官所傳 則聖體以痰牽之候 有靡寧之節云. 亟許臣等入診詳察 議定湯劑. 批曰 未有甚損 湯劑當自內議定. 卿等不必入侍矣.” (고종 43년 양력 5월 25일)

48) “太醫院入診. 都提調李根命曰 聖候靡寧 今至屢日. 口奏之批 連伏承漸有勝度之教 而通順散進御後 諸節更若何. 上曰 始則胸膈 痰崇甚苦 呼吸不順矣 今稍有勝度 通順散不無其效 而腰脅尙尠牽疼 上部或有發表之症. 必是風火之散於外者矣. 根命曰 此是風火之候 或試外治之藥乎. 上曰 以臘雪水洗之 塗牛黃熊膽矣. 根命曰 陛下寶齡已爲向衰 自異於春秋鼎盛之時. 攝養保壽之方 宜倍加留神矣. 古人論治病之法曰 淸心寡慾. 雖似迂遠 實則切要. 如節飲食 愼起居 省思慮 養精神 皆所謂淸心寡慾之事矣.” (고종 43년 양력 5월 28일)

49) “痰飲流注於胸背 頭項 腋脇 腰腿 手足 聚結腫硬 或痛或不痛 按之無血潮 雖或有微紅亦淡薄 不熱 堅如石 破之無膿 或有薄血 或出清水 或如紫汁 又有壞肉如敗絮 或又如癩癰在皮膚之間 如鷄卵可移動 軟活不硬 破之亦無膿血 鍼口努肉突出 惟覺咽喉痰塞 作寒作熱 榮衛返魂湯主之.(醫鑿)” (許浚, 『신대어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507.)

50) “榮衛返魂湯 主一切痰飲爲患 專治痰腫. 又治癰疽發背 流注腫毒. 赤芍藥 木通 白芷 何首烏 枳殼 茴香 烏藥 當歸 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酒水各半 煎服(醫林). ○一名追風通氣散 一名通順散 又名何首烏散. 此方宜 與十宣散相間用之 並加忍冬藤(入門). ○凡氣血逆於內理 令壅結爲癰疽 此藥大能順氣勻血 自然榮衛通順 不生變證 尤合內疔(入門). ○虛加附子 實加大黃 痰盛加南星半夏 腫毒堅硬不穿 加川芎 麻黃 葱白 全蝎 穿山甲 流注 加獨活. 流注者 氣血凝滯 加獨活 則可以動一身血脈 血脈既動 豈不有流注乎(入門). ○此

설수는 선달 납향(臘享)<sup>51)</sup> 즈음에 온 눈을 녹인 물로 성질이 차고 온역(溫疫)과 일체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sup>52)</sup>.

이 당시 고종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고종 42년(1905년)에 조선은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고, 고종 44년(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은 친일파와 일본의 강요에 의해 순종에게 제위를 물려주면서 퇴위하게 된다<sup>53)</sup>.

고종은 퇴위 이듬해(1908년), 57세의 나이에 족부(足部)가 편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 순종이 황후와 함께 덕수궁<sup>54)</sup> 문안을 오기도 한다<sup>55)</sup>.

59세 무렵(1910년)에는 고종이 체증(滯症)을 드러내 전의(典醫)가 덕수궁에 입진하였는데, 곧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한다<sup>56)</sup>.

고종은 61세 무렵(1912년) 눈병(眼患)을 앓았었다. 11월 24일의 기록에 왕세자<sup>57)</sup>가 일본에서 고종의 눈병을 문의하고 회복을 기원하는 진보를 보내오기도 한다<sup>58)</sup>. 동월 28일의 기록을 보면 고종의 눈병으로 여러 의사들이 들어와 진료를 하였는데, 이후로는 고종이 주로 일본의 양의사들에 의해 진료를 받았음을 볼 수 있다. 고종의 진료에 참여한 의사로는 조선총독부의원장(朝鮮總督府醫院長) 후지타 쓰구아키(藤田嗣章), 안과의사(眼科醫師) 우노 고이치(宇野功一), 통역의사(通譯醫師) 가미오카 가즈유키(神岡一亨), 의사 스즈키 켄노스케(鈴木謙之助, 전의(典醫) 이케베 요시오(池部義雄) 등 이었다<sup>59)</sup>.

고종은 62세인 1913년 5월 초에 덕수궁 함녕전에서 옥체에 손상이 있었다고(王體受微傷) 나온다<sup>60)</sup>. 당시 총독부의원장(總督府醫院長) 후지타 쓰구아키(藤田嗣章) 등이 입진하였고, 전의(典醫) 서병효(徐丙孝)도 입진하였으며<sup>61)</sup>, 촉탁의(囑託醫) 스즈키 켄노스케(鈴木謙之助)도 입진하였는데<sup>62)</sup>, 곧 환후가 평상시처럼 회복되었다고 한다<sup>63)</sup>. 당시 고종은 가벼운 외상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6월에 들어와 고종의 옥체가 미령하여 총독부의원장 후지타와 전의 홍철보 등이 입진하였는데, 곧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었다<sup>64)</sup>. 이를 뒤에도 총독부의원장 후지타 등 의관 2명이 덕수궁에 들와와 진료하였는데<sup>65)</sup>, 약 10일 뒤에는 후지타 등 5명에게 환후를 진료한 공로를 치하하는 물품을 내리기도 한다<sup>66)</sup>. 10월말에 와서는 감기 증세로 전의(典醫) 이케베 요시오(池部義雄)가 입진(入診)하기도 하였으며<sup>67)</sup>, 촉탁의 스즈키 켄노스케(鈴木謙之助) 등이 덕수궁에 들어와 진료하였는데<sup>68)</sup>, 곧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게 된다<sup>69)</sup>.

고종은 66세인 1917년 들어와 치과질환을 나타낸다. 10월 22일의 기록에 치부(齒部)의 환후(患候) 때문에 의학박사 시마미네 도루(島峰徹)가 덕수궁에 입진한 것이다<sup>70)</sup>.

67세인 1918년은 고종의 서거 1년 전으로 4월 무렵에 관절염 증세를 보였고, 8월과 9월에는 몸이 아픈 증후(靡寧之候)가 있다고 나온다.

1918년 4월 16일의 기사에는 고종이 관절염(關節炎)으

藥治流注癰疽發背 至於救壞病 活死肌 弭丸於未萌之前 拔根於既愈之後 大能順氣勻血 蓋氣陽也 血陰也 只調陽不和陰 則氣耗而癰肌 必不活 如五香連翹之類是也. 只和陰不調陽 則血旺而氣弱 病必再作 如內補十宣之類 是也. 此藥兼之 眞神仙妙劑也(醫林).”(上揭書 『신대역東醫寶鑑』, p. 1508.)

51) 납향(臘享) :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이나 미일(未日)에 한해 동안의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

52) “臘雪水 拭凍 납향(臘)기온 눈 녹은 물. 性冷 味甘 無毒. 治天行時氣溫疫 酒後暴熱 黃疸 解一切毒 又洗眼 去熱赤(本草). ○臘雪水 大寒水也. 雨下遇寒氣 應而爲雪 其花六出 稟六一之正氣也.(入門) ○藏淹 一切果實良. ○春雪有虫 不堪收(本草)”(上揭書 『신대역東醫寶鑑』, p. 1828.)

53) “十九日. 陰曆丁未六月十日. 承命代理聽政 仍受禪.”(순종 즉위년 양력 7월 19일)

54) 덕수궁(德壽宮)은 조선시대에 경운궁(慶運宮)으로 불려왔으며, 1897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이 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고종이 퇴위한 때까지 약 10년간 정치적 혼란의 주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1907년 고종은 제위를 황태자에게 물려주었으며 새로 즉위한 순종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태상왕(太上皇)이 된 고종은 계속 경운궁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때 궁호를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꾸었다. 1910년 궁내에 서양식의 대규모 석조건물인 석조전(石造殿)이 건립되었다.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창년사, 1999, pp. 184-186.)

55) “太皇帝足部有靡寧之節 詣德壽宮 謁問候. 皇后隨詣.”(순종 1년 양력 4월 1일)

56) “典醫洪哲普金滄培入診于德壽宮. 以滯崇靡寧 旋即康復.”(순종실록 부록 3년 양력 12월 18일)

57)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垕). 貴妃 嚴氏 소생으로 순종의 이복동생.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나 그 해 조선총독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유학이란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감. 1910년 국권이 상실되어 순종이 폐위되자 왕세자로 격하됨. 1963년 부인 이방자여사와 함께 귀국하여 1970년 세상을 떠남. (박영규,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1996, pp. 445-446.)

58) “王世子 以電報 奉問太王殿下眼患經過如何 並祝速平復.”(순종실록부록 5년 양력 11월 24일)

59) “太王殿下有眼患 朝鮮總督府醫院長藤田嗣章 眼科醫師宇野功一 通譯醫師神岡一亨 醫師鈴木謙之助 典醫池部義雄等入診. 自是以後 同醫師等 每數日一入診.”(순종실록부록 5년 양력 11월 28일)

60) “太王殿下於威寧殿內起居之際 王體受微傷. 總督府醫院長藤田嗣章等入診.”(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5월 1일)

61)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5월 2일.

62)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5월 3일.

63)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5월 3일.

64) “總督府醫院長藤田嗣章外醫官二人入診. 以玉度靡寧. 太王殿下命遣典醫洪哲普入診. 旋即平復.”(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6월 2일)

65)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6월 4일.

66)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7월 14일.

67) “太王殿下以感崇玉度靡寧 典醫補池部義雄入診.”(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10월 31일)

68)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11월 1일.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11월 2일.

69) 순종실록부록 6년 양력 11월 5일.

70) “醫學博士島峯徹入診于德壽宮. 以齒部有患候也.”(순종실록부록 10년 양력 10월 22일)

로 조금 아픈 증후가 있어 전의보(典醫補) 이케베 요시오(池部義雄)가 입진한 내용이 나온다<sup>71)</sup>. 8월에 들어와 고종의 아픈 증후(靡寧之候)로 전의축탁(典醫囑託) 안상호(安商浩)가 입진하였으며<sup>72)</sup>, 이를 뒤에는 왕세자가 일본에서 고종의 병환을 걱정하는 전보를 보내오기도 한다<sup>73)</sup>. 9월 들어와 고종의 환후가 회복되어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 이하 봉사하였던 직원(職員) 및 전의(典醫)와 별입직(別入直) 등 36인에게 오찬을 내리기도 하였으며<sup>74)</sup>, 4일 뒤에는 종척·귀족 등을 인정전에서 접견하고 축하연을 열기도 한다<sup>75)</sup>.

이듬해인 1919년 1월에 고종은 68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승하한다. 1월 20일의 첫 번째 기사에 고종이 편찮아서 전의 김영배(金滢培)와 총독부의원장(總督府醫院長) 하가에이지로(芳賀榮次郎)가 입진하였다고 하였으며<sup>76)</sup>, 당일 두 번째 기사에는 순종이 덕수궁에 찾아가 왕비와 함께 하루 밤을 머물렀다고 하였으며<sup>77)</sup>, 당일 세 번째 기사는 고종의 병이 위독해 종척과 귀족들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자작(子爵) 이기용(李琦鎔)과 이완용(李完鎔)에게 별입직(別入直)하도록 명한다<sup>78)</sup>. 당일 네 번째 기사는 도쿄에 있는 왕세자에게 고종의 위중한 병세를 전보로 알리는 기록이다<sup>79)</sup>. 다음날인 1919년 1월 21일 묘시(卯時)에 고종은 덕수궁(德壽宮) 함녕전(咸寧殿)에서 승하한다<sup>80)</sup>.

고종의 사망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고종의 병이 위중해진 날자가 1월 20일이었는데, 3일 전인 17일에 순종은 왕비와 함께 덕수궁을 알현했지만 고종의 병세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sup>81)</sup>.

또한 당시 궁내부 사무관이었던 일본 관리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sup>82)</sup>의 기록인 『이왕궁비사(李王宮秘史)』에 의하면 고종의 사망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는 확인할 수 있다.

“태왕전하께서는 그날 밤에 수라를 드신 후 상궁과 세상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시며 일주일 뒤로 다가온 왕세자 전하의 축복할 만한 혼사를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갑자기 뇌일혈 증세를 보이시며 한 순간에 위독한 상태에 빠지셨던 것이다. ... 그날 밤 2시경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 불분명한 조선인의 말이 들렸다. ‘태왕전하께서 중태에 빠지셨으니 즉각 오십시오.’ 나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혹시 창덕궁이 아닌가 반문하였다. 내가 창덕궁이 아니냐고 물은 것은 왕 전하께서 평소 병약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덕수궁 전하께서는 매우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자리하고 있어서이다.”<sup>83)</sup>

즉 고종은 평상시에 비교적 건강했기 때문에 순종이 위

독한 것이 아닌가 물은 것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종의 사망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공식 발표를 한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每日申報』 1919년 1월 21일자 호외에서는 고종이 21일 오전 1시 45분경에 돌연히 뇌일혈(腦溢血)이 발생했다고 하였으며, 당시 전의(典醫)들의 기록인 『태의원일기(太醫院日記)』에도 고종이 졸중풍(卒中風)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나온다<sup>84)</sup>.

그러나 민간에서는 윤덕영(尹德榮)·한상학(韓相鶴)·이완용(李完用) 등 주모자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고종이 독이 든 식혜를 먹고 일체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이 널리 유포된다<sup>85)</sup>. 결국 이러한 고종의 독살설은 조선 백성의 일체에 대한 항거로 표출되어 3·1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종의 독살과 관련한 국내의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윤치호(尹致昊)의 일기를 들 수 있다. 이 기록은 고종의 시신을 직접 본 명성황후의 사촌동생 민영달(閔泳達)이 중추원함의 한진창(韓鎭昌)에게 한 말을 전해듣고 적은 것이다. 윤치호의 1920년 10월 13일자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종 독살 혐의를 기록해 놓았다<sup>86)</sup>.

① 건강하던 고종황제가 식혜를 마신지 30분도 안되어

- 71) “太王殿下以關節炎 少有靡寧之候. 典醫補池部義雄入診.” (순종실록부록 11년 양력 4월 16일)
- 72) 순종실록부록 11년 양력 8월 20일.
- 73) 순종실록부록 11년 양력 8월 22일.
- 74) 순종실록부록 11년 양력 9월 14일.
- 75) 순종실록부록 11년 양력 9월 18일.
- 76) “二十日. 太王不豫. 典醫金滢培 總督府醫院長芳賀榮次郎 入診.” (순종실록부록 12년 양력 1월 20일)
- 77) “詣德壽宮 觀謁 王妃隨詣. 仍經宿.” (순종실록부록 12년 양력 1월 20일)
- 78) “引見宗戚貴族等. 以太王殿下患候沈重問候也. 仍命子爵李琦鎔 李完鎔別入直.” (순종실록부록 12년 양력 1월 20일)
- 79) “太王殿下患候大漸 電報于東京王世子別邸.” (순종실록부록 12년 양력 1월 20일)
- 80) “卯時. 太王殿下薨于德壽宮之咸寧殿. 翌日 復.” (순종실록부록 12년 양력 1월 21일)
- 81) “十七日. 詣德壽宮 觀謁 王妃隨詣. 仍詣塔源殿景孝殿 展謁.” (순종실록부록 12년 양력 1월 17일)
- 82)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1875년 후쿠오카생.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1905년 조선에 건너와 1907년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궁내부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입궁한다. 그 후 15년간 궁내부의 여러 부서를 옮기며 거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였고 굵직한 사안들에서 실무자로 일했다. 1920년 궁을 나와 조선신문사 부사장이 되었고 자신의 궁중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에 연재한 글을 수정·편집해 1926년 『이왕궁비사(李王宮秘史)』를 펴냈다.
- 83)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대한제국 황실비사』, 서울, 이마고, 2007, pp. 222-253.
- 84) 김정선, 『朝鮮時代 王들의 疾病治療를 통해 본 醫學의 變遷』,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 47-48.
- 85) 독립운동가 이관직(李觀植)은 자신의 저작 『우당 이회영 실기(友堂李會榮實記)』에서 “고종이 밤중에 식혜를 드신 후 반 시간이 지나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 괴로워하시다가 반 시간 만에 붕어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데이 2011년 11월 6일자 기사. <http://sunday.joins.com>)
- 86) 윤치호, 『윤치호 일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 196.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갔다.

② 고종 황제의 팔다리가 1-2일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황제의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③ 민영달과 몇몇 인사는 약용 솜으로 고종황제의 입안을 닦아내다가, 황제의 이가 모두 구강 안에 빠져 있고 혀는 닳아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④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⑤ 고종황제가 승하한 직후에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sup>87)</sup>.

이런 기록이 사실이라면 고종이 독살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에는 이런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이고 비슷하게 암시하는 정도의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고종실록(高宗實錄)』과 『순종실록(純宗實錄)』이 일본인에 의해 편수되어 독살 관련 정황을 수록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sup>88)</sup>. 부왕 인조(仁祖)에 의한 독살 혐의가 매우 높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의 경우<sup>89)</sup>, 『인조실록(仁祖實錄)』에서는 사관의 평을 통해 소현세자 시신의 상태를 언급함으로써<sup>90)</sup> 소현세자가 독살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할 것이다.

독살과 관련한 일본측 자료로는 최근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李泰鎭)교수가 당시 일본의 고위 관료가 기록한 일기를 발굴하여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1919년 일본 궁내성(宮內省) 체실(帝室) 회계심사국 장관이었던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가 쓴 일기로 독살의 배후에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당시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있었으며 독살의 이유는 고종이 독립운동에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궁내성 내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sup>91)</sup>. 이 기록은 고종 독살의 직접적 증거 자료로는 부족하지만 고종의 죽음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독살의 배후나 정황을 일본 관료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 III. 맺는말

고종에게 있어 가장 고질적 병증은 비위허약(脾胃虛弱)

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종의 질병기록을 살펴보면 비위허약으로 인해 체증(滯症)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담체(痰滯)나 담견지증(痰牽之證) 같은 표현도 나타나는데, 담체(痰滯)는 비위허약으로 운화기능(運化機能)이 실조(失調)됨으로 습담(濕痰)이 형성된 것을 말하며, 담견지증(痰牽之證)은 비위기능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한 담음유주증(痰飲流注證)의 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종의 비위허약(脾胃虛弱)은 고종 자신의 선천적 체질과 관련이 깊다고 보여진다. 고종의 성품은 소심·나약하고 조심스럽고 조용하여<sup>92)</sup> 사상의학(四象醫學) 체질 분류상 비위기능(脾胃機能)이 약한 소음인(少陰人)으로 추정된다<sup>93)</sup>.

그 밖의 고종의 병증 표현을 살펴보면 중기, 감기, 피부병, 소양증(搔癢症), 치아 손상, 흉격부위 통증, 호흡불순(呼吸不順), 족부미령(足部靡寧), 눈병(眼患), 외상, 치과질환, 관절염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고종실록』에는 고종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으로 가미소풍산(加味消風散), 영위반혼탕(榮衛返魂湯) 등과 함께 몇 가지 외용약을 함께 사용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병증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입진(入診) 기록만 열거할 뿐 치료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연령에 따른 고종의 질병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87) 이완용 등의 사주를 받아 고종에게 독이 든 식혜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침방 나인 김춘형과 덕수궁 나인 박완기가 고종 사망 직후인 1월 23일과 2월 2일에 사망한다. 두 사람의 합구를 위한 일제의 독살이 의심된다. (중앙선데이 2011년 11월 6일자 기사. <http://sunday.joins.com>)
- 88) 『고종실록』은 『순종실록』과 함께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이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고종실록』은 『순종실록』과 함께 이왕직(李王職)의 주관으로 1927년 4월 1일에 편찬을 시작하여 7년이 경과한 1934년 6월에 완성되었고, 이듬해 3월 31일에 간행이 완료되었다. 실제 편찬의 총책임자는 1930년 4월에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쇼고(小田省吾)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89) 출처를 참고할 것. (김훈, 『昭顯世子の死因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3), pp. 210-227.)
- 90) 『인조실록』 인조 23년 6월 26일의 기록.
- 91) 구라토미는 친일파 송병준(宋秉畷)으로부터 고종 독살관련 정황을 듣고 이 사실 여부를 궁내성 종질료(宗秩寮) 상급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캐묻는다. (조선닷컴 2009년 2월 28일 기사. <http://news.chosun.com>)
- 92)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고종의 성격을 소극적이고 의존적 타입의 인물로 분석한다. (강현식,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살림출판, 2008, pp. 292-300.)
- 93) 김민호는 어진(御眞)을 통해 역대 조선 왕들의 사상의학적 체질 분석을 시도한 학위논문에서 고종을 선천적으로 비위 기능이 약한 소음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 위장장애와 그에 따른 소화제를 처방한 것은 고종이 소음인 체질일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고 보았다.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 76-82.)



고종은 16세(1867년)에 살쩍부위에 가벼운 종기가 생겼으나 쉽게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의관은 종기 부위에 붙일 고약으로 당귀고(當歸膏)와 납지고(臘脂膏)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33세가 되는 고종 21년(1884년) 겨울에 들어와 세자와 함께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으며, 34세 초에도 중증과 함께 감기 증세를 보였다.

39세 무렵(1890년)에 여름 감기와 체증(滯症)으로 시달렸다. 당시 고종은 체력이 약해져 여름 감기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고종의 고질적 질환이라 할 수 있는 체증이 같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43세 무렵(1894년)에 얼굴과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질환이 나타난다. 치료를 이한 내복약으로 가미소풍산(加味消風散)을 사용했고, 외용약은 파초즙(芭蕉汁)에 우황(牛黃)을 섞은 약을 사용했다. 당시 고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염 증세나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7세가 되는 고종 35년(1898년)에 담체(痰滯) 증상을 호소한다. 이것은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운화기능(運化機能)이 실조(失調)됨으로 인해 습담(濕痰)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아편 커피 사건’으로 태자와 함께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한다.

52세(1903년) 무렵에는 음식에 모래가 섞여 들어가 치아가 손상되기도 한다.

55세(1906년) 무렵에는 ‘담이 걸리는 증후(痰牽之候)’, 가슴에 담(痰)이 차서 괴롭고 호흡이 순조롭지 못한 증상 등을 호소한다. 이것은 비위기능(脾胃機能)이 순조롭지 못해 담음유주증(痰飲流注證)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를 위해 내복약으로 영위반혼탕(榮衛返魂湯)을 이용했고, 외용약은 납설수(臘雪水)를 이용해 환부를 씻고 우황(牛黃)과 웅담(熊膽)을 피부에 발랐다.

고종은 퇴위 이듬해(1908년), 57세의 나이에 족부(足部)가 편치 않은 증상이 나타났으며, 59세(1910년) 무렵에는 체증(滯症)을 드러냈다.

61세(1912년) 무렵 눈병(眼患)을 앓아 일본인 양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기도 하며, 62세(1913년)에는 옥체에 손상이 있었으나(王體受微傷) 곧 회복된다.

66세(1917년) 들어와 치부(齒部)의 환후(患候)를 드러내 일본인 의학박사의 진료를 받기도 하며, 67세(1918년)에는 관절염 증세와 몸이 아픈 증후(靡寧之候)를 나타낸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에 덕수궁(德壽宮) 함녕전(咸寧殿)에서 68세를 일기로 승하한다.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고종이 독이 든 식혜를 먹고 독살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나는 직접적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고종 독살의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 다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내외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종이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본 고찰은 고종의 질병관련 기록을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국한하여 고찰을 했다. 아울러 『내의원일기(內醫院日記)』, 『전 의사등록(典醫司謄錄)』, 『태의원일기(太醫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내각일력(內閣日曆)』 등의 사료(史料)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고종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연구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高宗의 주요 疾病과 治療

연령	주요병증	치료
16세 (1867년)	살쩍부위 종기	의관이 當歸膏와 臘脂膏를 추천
33세 (1884년)	세자와 함께 질병에 걸림.	
34세 (1885년)	감기 증세	
39세 (1890년)	여름 감기와 체증(滯症)	
43세 (1894년)	얼굴 및 전신 부위의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질환	加味消風散. 외용약은 芭蕉汁에 牛黃을 섞은 약.
47세 (1898년)	담체(痰滯) ‘아편 커피 사건’으로 인한 중독	
52세 (1903년)	치아 손상	
55세 (1906년)	담이 걸리는 증후(痰牽之候). 담이 차서 괴롭고 호흡이 순조롭지 못한 증상.	榮衛返魂湯. 외용약은 臘雪水로 환부를 씻고 牛黃과 熊膽을 바름.
57세 (1908년)	足部가 편치 않음.	
59세 (1910년)	체증(滯症)	
61세 (1912년)	눈병(眼患)	
62세 (1913년)	옥체손상(王體受微傷)	
66세 (1917년)	齒部患候	
67세 (1918년)	관절염 증세와 몸이 아픈 증후(靡寧之候)	
68세 (1919년)	德壽宮 咸寧殿에서 승하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2010AA117)

22. 강현식.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 살림출판. 2008.

## 참고문헌

1. 實錄廳撰. 『朝鮮王朝實錄』. 서울 : 서울시스템(주). 1995.
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3.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 법인문화사. 2007.
4. 許浚. 『對譯東醫寶鑑』. 경남 : 동의보감출판사. 2005.
5.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 들녘. 1996.
6.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 : 푸른역사. 1998.
7.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1998.
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 까치. 1990.
9. 국사대사전편찬위원회. 『國史大事典』. 서울 : 교육도서. 1988.
10.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 法制處. 1979.
11. 金勳·李海雄.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 22(2).
12. 金勳·李海雄. 「朝鮮時代 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 23(1).
13. 김훈. 「昭顯世子の 死因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 19(3).
14. 『醫學百科』. <http://big5.wiki8.com>
15.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 청년사. 1999.
16.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대한제국 황실비사』. 서울 : 이마고. 2007.
17. 윤치호. 『윤치호 일기』. 서울 : 역사비평사. 2001.
18. 『중앙선데이』 2011년 11월 6일자 기사. <http://sunday.joins.com>
19. 『조선닷컴』 2009년 2월 28일 기사. <http://news.chosun.com>
20. 김정선. 「朝鮮時代 王들의 疾病治療를 통해 본 醫學의 變遷」.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1.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